

이긴자 일대기 【10】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한 청년의 올바른 생각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이씨 성을 가진 목사 집의 토굴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오니, 조희성 주님의 모발은 더욱 길어졌고 구레나룻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누가 보아도 20대 청년으로 보이지 않고 30대 후반의 장년으로 보였던 것이다. 대동군 내에 있는 젊은 반공 청년들이 치안대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이 주님에게 치안대장을 맡으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은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으로서 나이를 어리니, 나이를 지긋이 잡수신 어른께서 대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하였으나, 그들은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였고, 조동지는 대학생으로서 이남에서 끌려와서 총살까지 당했으니 애국자 중에 애국자요 조 동지야말로 빨갱이 때려잡는 데 적임자니 그만 맡고 치안대장을 하시오.” 하며 억지로 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희성 주님은 반공청년 30여 명을 데리고 대동군 치안대를 이끌고 인민군 패잔병과 좌익에 물든 청년들을 생포하여 미군부대에 포로로 인계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치안대원들은 인민군을 포로로 잡기만 하면 죽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도 뼈아프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심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서 치안대원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는 가운데 에둘러 같은 동포끼리 서로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사람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학대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해방을 맞아 독립 국가를 세운 지 몇 년 되었다고 동족끼리 싸우고 죽여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먼 훗날 치욕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몇몇 위정자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죽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사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사상만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렇게 조희성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웅변하니, 대부분의 치안대원들이 감격하여 “맞소, 조 동지 말이 맞소.” 하면서 찬동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청년이 바로 섰을 때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했다.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주님의 제안에, 삼분의 이 정도의 대원은 수긍을 하며 호응하는데 나머지 대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안(案)은 다수결로 통과되었는데, 삼분의 일 정도의 대원들은 “이 빨갱이 높은 약질 중의 약질로서 우리 부모를 죽이고 형제자매를 무참히 학살하고 죽였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며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여 그때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포로들

치안대장인 조희성 주님이 말려서 죽을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고 형무소로 넘겨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인민군 특공대 200명을 생포함

한번은 밤 열두 시에 문밖에서 “대장님, 대장님!”하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은 치안대장으로서 항상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잤었는데,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권총을 빼 들고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라고 하였다. 치안대원이라고 밝힌 청년이 말하기를, “다음 이 아니라 저 고개 넘어 독립가옥 두 채에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 200명이 독립가옥 한 채에 100명씩 나누어 지 금 밤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

들이 하는 말이, 오늘 밤중으로 우리 치안대를 습격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숨어 있던 집주인의 아들이 몰래 담장을 넘어 나에게 와서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럼, 즉각 치안대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리로 모이게 하시오. 시간을 끌지 말고 몇 명이라도 상관없이 연락이 되는 대원들만이라도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도로변 곳곳에 전화선이 널브러져 있으니 그 전화선을 서너 다발 쟁겨 오시오.”

이렇게 주님은 치안대원을 긴급히 소집하였으나 대부분이 자기 집으로 잠자리 갔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인 사람은 단지 다섯 명밖에 없었다. 시간이 촉박

함으로 할 수 없이 5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화선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면서 임무를 부여했는데, “너는 1소대장, 너는 2소대장” 하며 3, 4, 5소대장을 각각 임명했고 도착하자마자 공포탄을 쏘다가 내가 신호탄을 쏘며 “사격중지!” 하면 사격을 멈추고 “3소대장 한 뭉치 데리고 와!” 하면 다 오는 거다.” 하는 작전계획을 지시하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군에서는 4소대장은 없고 화기소대라고 부르며 5소대라는 것도 편제상 없는데,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군 경험이 없었던 조희성 주님은 그런 우(愚)를 범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기와집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밖과 안이 보이지 않도록 좁은 담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 가옥 주위를 뺨 둘러서서 공포탄을 일제히 쏘아대니 조용한 밤하늘이 뒤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밖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깜깜한 한밤중에 사방에서 갑자기 콩북듯이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므로 한참 식사하던 인민군 특공대 200명 모두가 정신적으로 제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대문 쪽에 있던 주님은 노란 신호탄을 쏘며 “사격중지!” 하고 큰소리로 명령하자, 갑자기 사격이 중지되고 사방은 쥐죽은듯이 조용해졌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1개 중대는 인민군 군관단으로 구성된 특공대 200명을 완전 포위하였다. 모두 손들고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나 만약에 대항한다면 수류탄

세례를 퍼부어 전멸시킬 것이다.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 대답하라. 10초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끝장인 줄 알아라.” 하고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치자, 잠시 후 안에서 “항복하겠으니 쏘지 마쇼.” 하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손을 든 인민군들이 대문 밖으로 우르르 나오는 것이었다.

주님은 옷 속에 무기를 감추고 나오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공포탄을 두 발 쏘며 “도로 들어가!” 해놓고 “전부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나와! 만약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데도 나오면 사살하겠다! 명령이 떨어지면 한 사람씩 나와!” 그리고 치안대원을 향하여 “3소대장! 한 뭉치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로 명령하자 5명이 모두 대문 앞으로 우르르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한 명씩 인민군이 나오는 대로 전화선으로 두 손을 머리 뒤로 묶어서 200명 전원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포로들 중에는 장성급도 몇 명 있고 중국 팔로군 출신도 있었는데 대부분 군경력이 많은 자들이었다. 그중 최고 높은 왕별 두 개짜리 되는 사람은 주님이 제지할 새도 없이 치안대원이 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리는 것이었다. 다음은 별 하나짜리 차례가 되는데, 주님이 총을 든 치안대원 앞을 가로막으며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여 나머지 포로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단에 계속

이긴자 일대기

동족끼리 서로 죽이지 말라고 축석연설

조희성 주님은 포로들을 학교 교실에 다 집결시켜 놓고, “나는 서울서 온 대학생으로서 군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지역 치안책임자다. 우리 여섯 명이 너희들 200명을 잡았는데, 이래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고 하니 저희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눈치였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핏줄을 이어받은 단군 할아버지 자손으로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우리 민족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몇몇 위정자들이 시킨다고 하여 동족을 살상한다는 것은 사람의 노릇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놈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여 36년간이란 기나긴 세월에 우리말도 못하고 재산도 뺏기고 모든 것을 유린당해 왔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동족끼리 피를 흘려야 하느냐? 이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의 발상인 것이다.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많은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폭군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자.”라고 축석연설을 하였다.

이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긍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때 주님

은 ‘아무리 공산주의에 물이 들은 자라도 양심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들을 잡아 계속 형무소로 보내고 군내 구석구석을 뒤지며 철저히 별공작업을 하는 까닭에,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200명의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가 들었던 집에서도 그 집주인 아들이 다락을 통해 뒷담을 넘어 신고해 주어 전 공포를 세우게 된 것이었다.

뒤늦게 치안대원 6명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 군경력이 많은 팔로군 출신의 인민군 장교들은 평을 치며 한탄하면서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 6명의 용맹성에 탄복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치안대원 30여 명을 지휘하여 매일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인민군을 생포하고

악질 지방 빨갱이들을 모두 생포하니 할 한 숫자가 5천 명 이상이 되었다. 또한 주님은 포로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도 하였던 것이다.

조희성 주님이 스무 살 나이에 대동군 치안대장이 되어 인민군을 생포하는 일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긴자로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대동군 치안대장이라는 직책을 준 것이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를 때려잡는 훈련과정을 밟는 것이었다. 주님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긴자가 되었을 때, 창세 이래 6천 년간 사망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마귀는 전멸당하고 말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2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2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긴자 구세주의 권능과 증거 The Power and Evidence of the Victor Christ Prophetised in the Book of Revelation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7)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Revelation 2:7)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1) He who overcomes will not be harmed by the second death (Revelation 2:11)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둘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요한계시록 2:17)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giv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The name of a white stone no one knows except him who receives it. (Revelation 2:17)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징로 깎아 찌르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6-28)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s pottery is broken to pieces. I will also give him the morning star. (Revelation 2:26-28)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5) I (=God) will never erase the name of that who overcomes from the book of life. (Revelation 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12) 'He who overcomes,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Never again will he leave it. (Revelation 3:12)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21) He who overcomes will be given the right to sit with God on His throne (Revelation 3:21)\*

by Alice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고로 모두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행복이 있으며 하나 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 화목하게 살게 된다. 사랑하며 살게 된다. 내가 너고 네가 나이므로 분열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부모 다르고, 형제 다르고, 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은 한 피요, 한 몸이다. 한 영(靈)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인류는 마귀가 음양의 이분법으로 쪼개 놓은 사상과 감정을 박살하고, 빛의 본체 신선한 나무의 성품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존하는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가 있을 뿐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한마음」이 된다. 한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인 것이다. 인류는 한 피요, 한 몸이다. 아담-해와의 피는 하나님

피로 구성되었다.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다. 나무가 원체 다르고 가지 다른 것이 아니다. 원체와 가지는 똑같은 것이다. 사람이면 다 한 피요, 한 몸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이 짧은 고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 이기주의자들이다.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귀의 사상과 마음이 있는 고로, 「나」라고 하는 것이 불리하면 형제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여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짐승보다 못한 악(惡)한 인간이다.

그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악한 것이다. 안목이 있는 자는 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도 내 형제, 저 사람도 내 형제, 이 사람의 죄가 곧 내 죄요, 저 사람의 죄도 내 죄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과연 형제끼리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 오늘날 악에 휩싸여 형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없고, 오직 나 이외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악한 짐승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나면 지구 땅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요, 다 같은 한 몸인 것이다.

자유율법

『자유율법: 완성의 깨달음 - 1권, 129-133페이지에서 발췌』